

# 전남 실업급여 23만건 지급...증가율 '전국 2위'

### 지난해 1~11월 23만5259건...코로나 확산 전 평균보다 78% ↑ 자영업 1만7000명 늘어 '역대 최대 증가'...대부분 '나홀로 사장'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으로 전남 실업급여 지급건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부족에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지난해 전남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 증가폭(1만7000명 ↑)을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문제철 과장과 김미주 과장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남 실업급여 지급건수 평균 증가율(2019년 10~12월 평균 대비)은 78%로, 제주(8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증가율은 59%로, 전국 평균(57.9%)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도 제주(100%), 울산(89%), 강원(88%)에 이어 전남(87%)이 네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60%로, 전국 평균 63.7%를 밑돌았다.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광주 21만4870건·전남 23만5259건 등 45만129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3053억원·전남 3370억원 등 642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광주 2만8000명·전남 2만4000명 등 5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가운데 30~59세 실업자가 광주 1만3000명·전남 9000명 등으로, 전체 실업자의 42.3%를 차지했다.

15~29세 청년 실업자도 광주 9000명·전남 7000

명 등 1만6000명으로, 30.8% 비중이었다. 60세 이상 실업자(광주 6000명·전남 8000명)가 26.9%로 뒤를 이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에 지역민들은 생계형 창업에 눈을 돌렸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광주 14만9000명·전남 29만6000명 등 44만5000명에 달했는데, 전남 자영업자 수는 통계를 낸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만7000명(6.2%)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통계를 낸 1989년 이후 역대 최대이다.

전년과 비교한 전남 자영업자 수는 2018년(-1만2000명), 2019년(-2000명), 2020년(-2000명) 등 3년에 걸쳐 감소했지만 지난해 크게 반락했다.

문제는 지난해 자영업자 증가분 모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홀로 사장'으로만 채워졌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000명 줄었는

데, 들여다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 늘고 무급가족종사자가 2000명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타격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매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광주·전남 숙박·음식점업 폐업률은 18.4%로, 다른 업종인 도소매(13.7%), 운수·창고(8.5%), 부동산(7.6%), 제조업(7.4%), 건설업(7.3%) 등을 크게 상회했다.

문제철 과장은 "전남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농림어업에서 단시간 근로형태의 근무자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며 "회복세처럼 보이는 고용지표와 달리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등 지역 성장잠재력 개선 발판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62.09 (-10.39)
↓ 코스닥	983.25 (-8.08)
↓ 금리(국고채 3년)	1.953 (-0.045)
↓ 환율(USD)	1187.50 (-3.00)

## 12년째 축하화분 경매 차상위 의료비로 기부

### 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전통적 사회공헌활동인 '축하화분 경매'가 13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인사철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된 화분을 모아 경매형태로 필요한 직원에게 판매하고 그 전액을 사랑의 1004운동 재원으로 모금하고 있다. 판매금은 다음달 광주지역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축하화분 경매에는 고성신 광주지역본부장, 김석찬 광주영업본부장, 한재규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 광주본부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을 통해 10여 년 동안 총 627명에 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사랑의 1004운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광주·전남 88개 신협, 지난해 자산 13조 달성

###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11억5000만원 지역 환원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지역 88개 신용협동조합이 지난해 자산 13조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광주 44개·전남 44개 조합의 자산은 13조3707억원으로, 전년(11조9764억원)에 비해 11.6%(1조3943억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규제 속에서 지난해 여신은 2020년 8조7413억원에서 지난해 10조2865억원으로, 17.7%(1조5453억원) 뛰었다.

연체율은 0.92%로, 전년(1.28%)보다 0.35%포인트 개선되며 '0%대 연체율'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수해복구지원, 장학금 전달 등 총 11억5000만원 상당 지역환원도 진행했다.

이날 신협 광주전남본부는 신협중앙회장 표창수 사장 20명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중앙회장 표창수 사장은 완도제일신협 김광식 이사장, 영암신협 박영실 이사장, 방림신협 양용록 주임, 보성밀알신협 선행송 과장, 광주문화신협 박정민 주임, 광주어룡신협 정찬남 차장, 강진신협 김양욱 주임, 영광합평신협 김안수 차장, 우산신협 정아운 서기, 광주문화신협 문아름 서기·박미성 서기·이규상 차장, 순천중앙신협 정기호 전무, 벌교신협 정호택 전무, 광주신우신협 추한주 과장, 광주하남신협 김해진 대리, 장면신협 장면 부장, 남광주신협 이형근 서기, 여수참조은신협 심상일 차장, 쌍봉신협 이명희 전무이다.

행사에서는 부기철 조선대학교 링크+사업단 교수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신협과 조선대 링크+사업단은 150명 이상 지역인재와 일자리 연계를 벌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왼쪽) 은행장과 최순진 제31보병사단 사단장이 최근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31사단 제휴카드 출시 협약

### 구매금액 0.6% 캐시백·배달업종 할인 등

광주은행이 향토부대 맞춤형 카드상품을 내놓는다.

광주은행은 최근 제31보병사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열고 제휴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중욱 은행장과 최순진 사단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가맹점 구매금액의 최대 0.6%를 돌려주는 31보병사단 제휴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카드 상품은 주유·영화·커피·KTX 등 이용금액 할인 서비스와 중흥골드스파·여수시도오션리조트·광주패밀리랜드·기아챔피언스필드·온라인쇼핑·군매점(PX)·배달업종 이용금액 할인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광주은행은 31보병사단 장병들의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

송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지역민의 국토방위에 힘쓰는 향토부대 장병 여러분 덕분에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31보병사단과 광주은행의 상생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길 바라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된장찌개 끓이기 겁나네

### 애호박 1개 2580원 '30% 경총'...광주 외식물가가 5년만에 3%대 상승

지난해 기상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난으로 인해 광주 외식물가가 5년 만에 3%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주요 집밥 식재료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3일 통계청 '나의 물가 체험하기'(kosis.kr/myPrice)로 거주지를 광주로 설정한 뒤 된장찌개에 들어갈 주요 식재료 5개 품목 소비자물가(지난해 말 기준)를 분석해보니 전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5개 식재료 모두 가격이 전년

보다 올랐다.

광주에서 풋고추는 무려 17.9% 올랐고, 호박(29.5%), 버섯(15.8%), 두부(6.6%), 된장(5.3%)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날 기준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애호박 1개는 258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대형마트 가격(1980~2290원) 보다 12.7~30.3% 올랐다.

청양고추 100g은 전년보다 33.3~39.5% 오른 1320~1660원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스타벅스, 개인컵 할인행사

### 적립 혜택 확대도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한 첫날, 다화용컵 사용 할인액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렸다.

스타벅스는 최근 최대주주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구설수로 불매운동 표적으로 떠올랐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13일부터 개인 다화용컵 이용 때 할인액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다고 이날 밝혔다.

스타벅스는 개인컵 이용 고객에게 할인 또는 적립 혜택(에코별 1개)을 제공해왔다.

다음달 2일까지는 제조 음료당 하나 적립했던 에코별을 하나 더 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개인컵을 이용해 제조 음료 1잔을 주문하면 최대 4개의 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개인컵 사용 건수가 8621만건에 이른다 고 집계했다. 할인 등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42억원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최근 7년 6개월 만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53종의 음료 중 46종의 음료가 각각 100원~400원 인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A | AIG | 아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